

# 의료기관 평가의 시대

한 상 원\*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 The era of healthcare accreditation

Sang Won Han, MD\*

Department of Ur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Sang Won Han, E-mail: swhan@yuhs.ac

Received December 25, 2011 · Accepted December 28, 2011

의료기관의 평가는 의료선진국을 시작과 중심으로 하여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료의 질 향상을 통하여 인류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의료가 공급자 위주에서 소비자 위주로 바뀌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의학의 도입 후 공급자 위주의 의료는 세계인의 건강과 수명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으나 의료기관에 따른 질의 격차와 의료비의 무한한 상승은 오히려 의료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가 증으로 인한 복지 하향으로 이어진다는 모순적 상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의 2자 관계에서 보건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개입하여 의료기관, 의료소비자, 정부의 3자 관계가 성립한다.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평가는 의료소비자를 대신하여 의료기관의 질을 평가하는 단순한 필요성에서 시작하는 시대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시기는 1980년대이다. 사회보장성 경제논리에서 출발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질보다는 양에 중심한 의료확장을 거듭하고 있었고 기관에 따른 의료의 질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평가와 관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한편 미국에서 시작된 Joint Commission은 의료비의 중간 지불자인 의료보험사가 의료비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질을 높이지 않고서는 해결되기 어

렵다는 인식으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실제로 이 기구의 관여로 미국의 의료 질 향상이 실현되었고 Joint Commission의 국제적 평가기구인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은 세계 각지에서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서 1차적으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2차적으로 세계 의료시장에서의 경쟁을 위하여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로부터 평가 받는 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 의료기관 평가는 의료정책 관리자인 정부로부터 평가받는가 하면 의료기관 스스로 질 관리를 위하여 피평가를 자원하는 시대가 되었다[1]. 여기에 2010년부터 시작된 의료기관평가인증은 위 두가지 목적을 충족하는 제도임을 표방하며 대형병원으로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실제로는 의무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여 바야흐로 의료기관의 평가 시대가 되었다[2]. 게다가 의료비 상승억제의 수단으로 의료의 적정성 평가도 시작되었고 확대될 전망이다. 이 시점에서 정착단계인 의료기관평가인증의 목표와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특집에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의 목표와 과제'를 논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의 촉발이 된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인증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이 시대의 대한병원협회의 입장을 '의료기관 평가의 시대,

병원협회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점검하고자 하였다.

‘의료기관평가인증의 목표와 과제’에서는 이 제도 도입 배경과 현황 그리고 숙제에 대하여 상세히 논하였으며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인증의 의미’에서는 최초로 이 제도로 평가받은 기관의 경험과 현황을 다루었다. ‘의료기관 평가의 시대, 병원협회의 역할’에서는 의료질향상이라는 궁극적 목표와 의료정책관리자인 정부의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대한병원협회의 입장에서 역사성과 난제와 전망을 자세히 다루었다. 의료기관의 평가시대에서 대한의

사협회의 고민과 정책개발은 궁극적인 국민 건강 향상에 필수라는 인식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 REFERENCES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erminology on health, welfare and family.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8.
2. Korea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Policy forum on ‘A search for method of introduction of hospital accreditation’. Seoul: Korea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9.